

국제정치사에 있어서 이념과 세력균형의 역동성

김 예 승 |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이 논문은 유럽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성립으로 국제정치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냉전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럼으로써 국제정치사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그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럽에 있어서 근대적인 국제사회의 성립 이후 이념 — 주로 민족주의 — 와 세력균형이 어떻게 국제정치의 흐름을 결정하는 축으로 역할하였는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은 어떠한 것인지 그 전개과정을 보려는 것이다. 특히 냉전 이후 국제화시대에서 그 흐름에 있어서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NGO시대 '권력의 이동'으로까지 언급되는 현대에 있어서 세계시민사회의 부상을, 이러한 관점에서 그 의미를 검토한다.

I. 국제정치사 연구를 위한 문제의식

국제정치사란 무엇인가? 국제정치사 연구를 위해 필요한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정치사가 역사라는 것, 그리고 국제정치는 사회과학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사를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국제정치사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관념과 역사적 현실, 다시 말해 이념과 세력균형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인식방향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양자의 통일물이 역사적 현상으로

1) 베버도 과학적 인식의 두 개의 길을 생각하고 있다. 즉 '보편적으로 타당한 관계개념으로서의 법칙'을 추구할 수 있는 인식방향과, 그 외에 또 하나의 — 우리에게 알기 쉬

서 국제정치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현상으로서 국제정치의 다양성은 국제정치의 존재양식,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세계사적 발전의 보편성을 염두에 두고 역사적 현상으로서 세력균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그것이 학문에 종사하는 한, 진리를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진리는 경험적 현실의 사유적 정리의 타당성을 유럽인에게도 동양인에게도 또 한국인에게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Weber 1994, 44).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제정치의 특성을 국제정치 역사의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제정치를 시대적 지역적 변화과정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전체적으로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학문적 연구영역의 근저에 있는 것은 '사물'의 '사실적' 연관이 아니라 문제의 사유적 연관이라고 할 것이다(Weber 1994, 53). 그런데 힘에 의한 정치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에(Morgenthau 1987) 따라 역사를 단순화하여 현상만을 관조적으로 지적하는 경우 그 같은 문제점이 생기게 된 요인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념과 역사적 현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 채, 현상에 대한 객관적 파악과 그 요인에 대한 주체적 인식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역사에서 교훈조차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창조되는가 아니면 운명인가? 역사는 어디로 가며 이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무언인가? 그 역사가 한국사이던 세계사이던 이 같은 질문은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어차피 역사는 세계사로 되어 있으므로.

국제정치사는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정치를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도 — 민족주의적 관점에서건, 근대화 관점에서건 — 반드시 그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치사는 어떻게 국제정치사의 흐름에 합류하였으며 국제정치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흘러왔는가? 이 같은 의문에 대해 한국정치사로부터 세계정치사를 향해, 혹은 세계정치사로부터 한국

은 표현을 사용한다면 역사적인 — 의미를 가진 '개성적인 사물개념으로서의 개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인식방향을 엄격히 구별한다. 이 인식의 두 개의 길은 자연과학의 경우에도 사회과학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大塚久雄 1982, 54-55).

정치사를 바라보며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근대사는 곧 국제정치사라는 말이 상징하듯, 국제정치와의 연관을 소홀히 하고는 한국역사 자체를 제대로 — 주체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 해석할 수 없다. 한국정치사의 주체적, 객관적 해석을 위해서는 ‘국제정치사’, 즉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사해석도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이념의 역사적 힘은 인간사회의 발전에 매우 강력한 것이었으며 또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에 관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적 의무 속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Weber 1994, 39). 따라서 이 같은 이념의 힘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도 국제정치 역사의 흐름을 이념과 세력균형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II. 국제정치사에 있어서 이념과 세력균형

1. 나폴레옹 시대 유럽에 있어서 민족주의와 세력균형

국제정치는 국제사회의 성립을 그 전제로 한다. 유럽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의미의 국제사회가 생겨난 것은 주권국가의 성립에서 시작된다. 주권국가의 일부는 종족, 언어, 풍습 등에서 동일한 집단을 기초로 한 민족으로 성장함에 따라 민족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²⁾ 이때 왕권은 민족적 통일의 상징으로서 민족의식은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왕조에의 충성을 축으로 해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성립되었을 때 그 구성단위인 국가는 주권국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평등하였다. 국가가 그 존립 또는 발전을 위해 갖는 욕구를 국가이성이라고 하며 이 시대 국제정치에서 끊임없이 추구되어 국가 사이의 세력균형이 도입되었다(岡義武 2002, 10-17). 세력균형의 기원과 생성은 나폴레옹 등장 후 그가 전 유럽적 규모에서 우월한 지

2) 자연, 문화, 역사와의 관계성을 벗어나서 정치적 민족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루소의 판단이었다. 다시 말해, 민족의 건설은 단순히 합리적 목적과 정치적 의지와 관계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민족이 되기 위하여는 동질성 뿐만 아니라 지속성도 필요하며, 정치구조의 성립과 동시에 문화적 전통도 요구된다.

위를 수립하려 하면서 여기에 대응해서 처음으로 전 유럽적 규모의 세력균형을 자극하면서 부터이다.

절대왕정기 유럽 각국의 활동은 유럽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세계정치에 있어서 유럽의 우월, '유럽의 팽창'은 그 역사적 기점을 이 절대왕정기에서 찾을 수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해 16세기 이후 유럽 밖으로 팽창이 기획되고 17세기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및 영국에 의해 식민제국건설이 시작되었다. 상업자본을 추진력으로 한 그 팽창과정에서 이들 각국은 혹독한 알력, 충돌을 되풀이 하였다. 영국은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7년 전쟁,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 세계제국 대항자 프랑스와 결승전을 치르고 거대한 세계제국으로 결정적으로 발전했다.

프랑스혁명 전쟁은 왕조와 왕조간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형태를 취한 국제적 규모에 있어서의 계급투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것은 프랑스혁명 당시 프랑스군이 그 선례로서 타국의 피지배층에 대해 왕에 대한 자유로운 인민의 해방군적 역할을 하며 상대국의 여론에 계획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프랑스혁명은 신권(神權)왕국의 입장에 선 부르봉왕조의 통치를 인민주권론의 이름으로 부인한 것으로 혁명프랑스에 의해, 특히 나폴레옹에 의해 전통을 자랑해 온 유럽의 왕조들은 조롱당했던 것이다. 프랑스혁명 전쟁은 나폴레옹의 군사적 천재성에 의해 역사상 전쟁형태에 있어서도 새로운 면을 보였다. 1799년 대불(對佛)대동맹 성립 후 나폴레옹 쿠데타에 의해 유럽역사상 나폴레옹 시대로서, 프랑스와 유럽 각국 간의 나폴레옹전쟁은 정복전쟁 색채를 띠게 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은 세계적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岡義武 2002, 22-44; 50-59). 그러나 그가 목표로 한 세계제국 영국의 타도는 결정적 봉쇄를 당하였다. 나폴레옹 등장 후 그가 유럽적 규모에서 우월한 지위를 수립하려 하자, 여기에 대응해서 처음으로 쏘유럽적 규모의 세력균형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후 군사적 영광에 빛나던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러시아에 대한 공포로 전환된 가운데 비엔나 회의 이후 정통주의와 세력균형을 지도원리로 하는 복고의 시대로 돌아간다.

나폴레옹 몰락 후 새로운 국제평화를 시도한 비엔나 회의의 세력균형은 프랑스의 우방국 및 약소국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유럽에서 이미 눈뜨기 시작한 민족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국의 피지배계층은 이미 프랑스혁명의 자유, 평등선언 뒤 절대주의적 정치체제가 타도되는 것을 목격하고, 혁명전쟁 및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의 세력 하에 놓인 지역에 혁명의

성과가 이식, 도입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에서 외쳤던 인민주권론은 왕조에의 충성을 중핵으로 한 민족의식을 국민을 담당자로 한 근대적 민족의식으로 전환하는 사상적 계기를 제공하였다.³⁾ 나폴레옹은 민족의식의 강한 것, 그 힘을 인식하고 이것을 의식해서 행동한 유럽 최초의 정치가로서 유럽에 있어서 민족의식의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념의 역사적 힘은 사회생활의 발전에 매우 강력한 것이었으며 또 아직도 그렇다(Weber 1994, 34). 특히 유럽역사상 나폴레옹 시대는 이념과 현실적 힘, 민족주의와 세력균형이 상호역동성을 가지고 역사의 추진력이 되었던 것이다. 민족주의 개념은 다양하다(김영작 1983, 71-83). 정치적 의미에서 그것은 민족이 그의 문화적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타민족의 정치적 지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을 말한다.

정치공동체는 조직화된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욱 개별 성원들에게 의무들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죽음도 기꺼이 맞이해야 한다고 요구된다. 이것이 '민족'이라는 정치공동체에 대하여 특수한 파토스를 부여하며 지속적인 감정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정치적 운명을, 무엇보다도 생사의 정치 투쟁을 함께 하는 공동체는 단순한 문화적 언어적 혹은 인종적 공동체 유대보다도 더욱 뿌리 깊은 영향을 주는 공통의 기억을 집단들에게 주어왔다. '민족의식'의 궁극적인 결정요소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기억공동체'이다. 이 기억을 함께 하면서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다(Weber 1994, 99).

이렇게 치열한 전유럽적 세력균형과 민족의식이 발달하는 역사 속에서 비엔나 회의의 후 각 국의 피지배계급, 피지배민족 간에는 정치적 자유 운동, 민족적 해방운동이 발전되어 국제정치的重要한 축으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

국제정치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힘(Power)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정치현실주의 논의가 16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유럽대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상의 기본내용이 정해졌던 것은 이 때의 유럽정치상황, 즉 유럽국제정치의

3) E.H. Carr는 민족의 담당자는 누구냐를 염두에 두고 민족주의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는 절대왕정-불란서 혁명 이전의 군주 nationalism, 2단계는 불란서 혁명-제1차 대전에 이르는 부르주아 nationalism, 그리고 3단계는 제1차대전 이후의 민중 nationalism이다(Carr 1956, 1-49).

치열한 무력경쟁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 독일·이태리 민족국가 탄생과 영국에 의한 세력균형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진전하게 된 1870년 독일, 이태리 2대 민족국가의 탄생으로 19세기 초 이래의 유럽국제정치의 진전은 비엔나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것은 비엔나회의 이후 세계정치에 있어서 영국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였다. 그것은 영국에 의한 세력균형과 영국해군에 의한 것으로 영국 산업자본의 세계적 우월에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 영국에 의한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러시아제국이 있었다(岡義武 2002, 63-5).

제국주의란 근대 국제정치사상 민족국가의 대외팽창이고 그 추진력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1870, 80년 대 이후를 말한다.⁴⁾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세계대국은 모두 유럽대륙에 위치하고 지구상의 광범한 부분은 유럽에서 지배하여 세계의 정치적 운명은 유럽대국의 회의실 또는 유럽을 주전장(主戰場)으로 하는 전쟁에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세계정치는 유럽 각국의 관계를 축으로 해서 변동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제국주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긴 시대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다.

우선 유럽에 대해서 보면, 1871~1914년까지 유럽국제 정치는 비스마르크가 독일제상 이었던 1871~1890년까지와 그 이후 시기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岡義武 2002, 89). 비스마르크의 '보장정책'은 1871년 이후 제국 재상으로서 새 독일제국의 안전을 유럽 국제정치에서 확보하는 것을 외교의 기본방침으로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유럽 평화유지를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복잡 정교한 동맹, 협상 망을 만들어 운용하였다. 특히 동방문제에는 '성실한 브로커'의 역할을, 대독(對獨)복수론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식민제국 건설을 측면에서 원조하여 관심을 유럽 밖으로 쏟게 하였다. 특히 비스마르크는 대불(對佛)정책에서 유럽 각국의 왕조가 프랑스 공화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을 고려했다. 왕조간의 연대감정을 그 외교정책의 기둥의 하나로 하려고 한 것이다.

4) 역사적인 현실 속에 나타난 제국주의의 의미, 즉 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Koebner 외 1964를 참조.

비스마르크가 제국재상에 있을 때와 지위를 떠난 후 유럽 국제정치에 거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과정은 그의 세계정치에의 영향을 보여준다. 우선 독일 내 빌헬름 2세의 '세계정책'에 의한 강력한 제국주의정책과 이것이 영국을 자극함으로써 3국협상 성립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이 그것이다.

3국협상의 국제정치적 의의는 크다. 3국협상 성립에 의해 유럽 제국주의 대국은 양분되어 대립하게 된 것이다. '영광스러운 고립'으로 '위대한 균형자'로서 역할해 온 영국이 반독(反獨) 3국협상에 속하게 됨으로서 이제 유럽 제국주의 각국 간의 세력균형은 전혀 우연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3. 유럽의 세력균형 변화와 극동에서의 세력균형

제국주의 시대는 비유럽에 있어서는 극동에 있어서 미·일의 등장으로 진전되게 된다. 미국은 1823년 먼로주의 선언으로 유럽의 세력균형으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 자국의 안전확보를 보장받으려 했다. 그러나 대통령 클리블랜드(G. Cleveland) 시대에 이르면 이 먼로주의의 내용은 미국의 우월적 지위 주장으로 바뀐다. 미국은 1898년 미서전쟁 후 필리핀 군도 획득, 하와이 병합으로 동아시아 영토로 진출하면서 극동국가로 등장한다. 그후 만주 및 한국을 둘러싼 일·러전쟁은 일본과 러시아 양국 사이의 전쟁일 뿐 아니라 전쟁의 진행 및 수습에 서양제국주의 각국이 관여하며 일·러전쟁과 세계정치와의 연관을 갖게 하였다. 특히 미국은 화평주선을 함으로써 일·러 양국 간에 세력균형을 수립케 하였다. 더 나아가 일·러전쟁과 세계정치와의 연관은 패전 후 러시아 제국주의가 팽창의 방향을 극동에서 발칸반도로 전환해 제국주의적 대립을 격화하게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런데 자본주의 발전은 국제정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영국이 먼저 산업혁명을 맞이한 것은 세계정치에 팩스 브리태니카 시대를 낳았다. 그러나 그 후 세계 각국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성장은 '제국주의 시대'를 가져오며 세계정치의 중심점은 다원화하기에 이르렀다. 제국주의시대의 진행에 따라 유럽대국들, 다음에 미·일이라는 비유럽국가가 세계정치에 등장하면서 그와 함께 영국에 의한 세력균형, 즉 '영국에 의한 평화' 시대와 다르게 세계정치의 중심점은 현저하게 다원화 것이다. 이들 제국주의 각국 간의 상호관계는 점점 복잡하게 되는 동시에 그 영향은 세계정치적 규모를 떠는 것으로 되었다. 이 점은 일·러전쟁을 기회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 세계정치 시대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재한 일·러협상이 당시 극동 국제정치의 소산이면서도 동시에 그 성립은 유럽 국제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었다. 이 일·러협상을 매개로 일본은 3국 협상의 결에 바짝 당겨지게 되었다.

미국이 긴 세월의 고립주의 전통에서 벗어나 연합국 측에 참전한 의의는 크다 (Spykman 1942, 123-4). 세계정치의 다원화는 세계정치에 있어서 제국주의적 대립간에 극히 복잡한 관련성을 생기게 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발전은 '제국주의 시대'를 가져온 동시에 그들 각국 내부에 계급 의식을 발전시켜 노동자운동을 성장시키게 되었다. 이들 노동자들은 그 중요 운동 목표의 하나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시켰다. 세계 각국의 노동자 계급에 의해 시도된 국제평화유지 노력으로 주목할 것이 1864년 런던 국제노동자 협회(후일 제1인터내셔널)라고 할 수 있다. 1848년 공산주의 선언을 기초로 노동자 계급에 대해 국제적 단결을 요청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협회에 참가하여 이 단체를 그들의 입장에 속한 것으로 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 전쟁은 각국 지배계급의 이익 충돌에서 원인한 것으로 보며 전쟁반대,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고조시켰다. 그후 더욱 발전된 노동자운동의 국제적 대중조직인 제2인터내셔널도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대립을 중심으로 불안정하게 된 국제정세를 반영해 전쟁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각국 노동자운동 내부에는 그 발전에 따라 날카로운 대립이 나타나 반전, 평화라는 원칙에는 일치하나 좌파는 일체의 전쟁을 자본주의의 소산으로서 반전주의, 전쟁을 혁명으로 전화하여야 한다고, 우파는 자본적 국가라 해도 민족의 자유와 문화를 대외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에 전쟁을 공격전쟁과 방위전쟁으로 나누어 후자에 대해서는 지지하였다. 이 대립은 제2인터내셔널에도 반영되었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후 대전쟁의 위험이 절박해지자 제2인터내셔널 가맹국 노동자 정당은 자국정부에 반전 평화를 요구하며 자국 여론에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전쟁 발발 후 각국 정부는 국내여론을 동원하여 국제적 위기에 직면한 흥분한 일반 인심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제2인터내셔널은 몰락하고 결국 세계 각국의 노동자 계급도 발칸반도의 민족해방운동을 단서로 시작된 제국주의 충돌의 세계전쟁 폭발저지에는 실패한 것이다.

4. 유럽의 세력균형 변화와 제국주의적 충돌

그동안 이루어진 시민적 정치체제의 발전은 민주적 제도들의 발달을 가져 왔는데 이것은 국제정치와 어떠한 관련을 가졌는가?(岡義武 2002, 128-36). 국내정치의 민주화가 국제정치상에 끼친 중요한 영향으로 외교정책의 결정 혹은 수행에 관하여 여론이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정부 또는 정치적 지배층에 의한 여론조작의 문제와, 외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국민의 의식수준이 상승하고 전쟁기술의 발달, 징병제도에 의해 전쟁이 일반국민에게 거대한 희생을 요구함에 따라 여론의 중요성은 더욱 강력해졌다.

제1차 대전은 여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의 전쟁이어서 참전국들은 자국 여론 뿐 아니라 적국 여론까지도 좌우하는 여론조작을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1914년에서 1918년에 이르는 시기는 세계 역사상 가장 계획적으로 기만이 행해진 시기였다. 특히 미국대통령 윌슨의 14개조 성명 등은 전후 수립될 아름다운 국제질서의 구상을 보여줌으로써 연합국의 인심을 고무시킴과 동시에 독·오축의 전쟁수행의지를 동요시켜 거대한 심리적 효과를 얻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상의 점에서 '심리전쟁의 대규모의 실험의 최초의 것'이었다(Padover 외 1951, 9).

제1차 대전은 유럽에서 싸운 세계전쟁이었다. 주전장(主戰場)은 유럽이었고 유럽에서의 전국(戰局)에 의해 전쟁의 귀추가 결정된 것이다. 유럽 제국주의 각국 간의 힘 관계이고 유럽 외의 국가는 유럽국제정치를 위해 동원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참전의의는 유럽이 세계정치에 있어서 옛날의 우위를 잃은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전후 국제정치의 새질서를 수립한 베르사이유 체제에서 연합국 측은 전후 국경을 확정함에 있어서 민족주의원칙을 적용했다. 따라서 민족해방 전쟁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 이것은 1914년에 이르는 유럽국제정치에서 민족주의가 그 기본적 동향의 하나를 이루어 왔던 것에도 의하는 동시에 윌슨의 14개조 선언에서 피지배민족의 해방을 고창한데 힘입은 것도 또한 크다. 그러나 그 적용은 심히 자의적이어서 이 원칙은 독·오축의 약체화를 위해서만 적용되고 연합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시한 국경획정이 이루어졌다. 다음에 연합국은 독오축에 극도의 군비

제한을 가해 군사력을 완전히 취약화시키고, 국제적 군비 축소에의 제1보라고 이름을 붙였다. 또 전쟁책임이 독·오축 국가들 쪽에 있다고 단정하며 거대한 배상의무를 과하고 독일의 식민지를 전부 포기시킨 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라는 이름 아래 연합국 간에 사실상 분배하였다(岡義武 2002, 153-5).

정치는 힘의 정치(Power Politics)라는 현실정치사상이 학문적 탐구대상으로 독일에서 정식으로 제시된 것은 이같은 국제정치를 배경으로 하였다. 즉 1차대전 후 패전국 독일에 대한 영·미의 도덕적 비난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보복에 대한 항변으로서, 전쟁선포와 같은 정치적 행위는 초월적 규범에 입각한 도덕적 판단의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지에서였다(박상섭 1992, 17). 베버의 이론 배경에는⁵⁾ 우선 독일을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유럽에서의 안정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를 통한 전쟁방지의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의 정치지도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통일 후 지역국가에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독일 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양면적 태도 그리고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한 반성, 그러면서도 독일이 영미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한 정당화와 패전 독일에 대한 영미의 도덕적 비난에 대한 반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베버의 정치적 현실주의란 기회주의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신념이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예측 및 책임의식과 통합되어 있는 정치적 행위방식이다. 베버는 민족주의자였다. 미국적 이상, 소련적 이상이 판치는 당시 세계상에서 독일적 가치를 어떻게 성립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김성호 2002). 그는 자기민족이 지배민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했으며, 그것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도 고심했다(Gerth 외 1994, 26-8). 전쟁의 경과와 독일의 패망이 베버가 20년 전에 예견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고 독일 국민들만이 전쟁의 모든 재난에 대해 유죄인 것처럼 선고 받게되자 그에 대한 반감에 객관성을 부여하려한 것이다.

현실주의 정치사상은 근대 국제정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정치현실에 대한 현실감을 가졌다. 19세기 말~20세기 초 독일의 현실주의 정치이론을 자극한 현실은 19세기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에 대한 독일의 도전이라는 상황이었다.

5) 독일 민족주의자로서 그의 현실주의적 정치사상을 잘 드러내는 글들로는 Mommsen 1981; Beetham 1974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따라서 이들에 의해 제기된 현실주의 정치철학은 아카데미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다.⁶⁾

정치구조들이 지닌 권력은 특수한 내부적 역학을 갖는다(Weber 1994, 107-9). 따라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중심으로 하며 따라서 권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문제를 논의해야한다는 주장과, 힘을 통한 현상변화의 시도는 폭력사용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비판되지만 실제 그 비판의 진정한 동기는 현상변화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카아(E.H. Carr)의 논지는 주목할 만하다(Carr 1956, 79-80). 그는 1차 대전 마무리 과정에서 낙관적 국제정치관을 바탕으로 세계문제에 인간이성을 강조하여 권력에 의거한 해결책보다는 국제도덕, 여론 등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 당시 국제적 분위기는 현실정치의 권력관계를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윌슨 대통령의 국제연맹 구상에 상징되듯이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과도한 기대를 부여한 유토피아적 노력에 대해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위하느냐 보다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의 도덕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국제 도덕에의 호소는 실제로는 영미 등 현상유지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는 카아의 비판의 표적은 도덕을 앞세운 권력보유자의 위선이었다. 그에 게 있어 권력과 정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정치는 곧 권력정치인 것이다(Carr 1956, 97; 100; 102).

5. 새로운 국제적 대립과 이념적 역동성

한편 베르사이유 체제는 휴전 당시의 국제적 힘의 균형을 고도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들 조약은 독일과 세계적 동맹의 사이의 힘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후 유럽의 국제정치는 베르사이유 체제를 둘러싸고 구 연합 각국과 구 독·오축 사이에 심한 반목에 의한 불안정을 나타나는데 그치지 않았다. 전쟁 중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한 볼셰비키혁명의 성공과 세계혁명을 목표로 한 공

6) 불행한 일은 뒤에 독일에서 발생한 나치즘의 허무주의적 권력철학과 베버를 연계시키면서 현실주의 정치철학이 마치 권력 지상주의의 철학으로 오해되었던 점이다(박상섭 1992, 19).

산주의정권의 성립은 당시 세계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구 연합국은 한편으로 구 독·오축 각국과 다른 편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게다가 또 구 연합국 각국 상호 간에도 날카로운 제국주의 대립이 발전하였다. 그 점에서 와싱턴회의의 역사적 의의는 중대하다(岡義武 2002, 174-9).

와싱턴체제는 주력함 보유에서 미·영의 균등을 실현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제해권 인정하면서 긴 세월의 미·일 제국주의적 대립에 관해 중국 문제, 영·일동맹, 시베리아 문제에서 미국이 아주 유리한 해결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달성한 것이다. 이것은 전진을 거듭해오던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에 의해 그 전도를 속박 당하고 후퇴까지도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후 세계정치에 생긴 국제적 대립의 발전으로 구 연합국과 구 독·오축 각국과의 대립, 자본주의 각국과 러시아(1923년 소련)와의 대립, 연합국내 미국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의 대립, 그리고 중국민족주의와 일본제국주의의 대립은 교차하면서 국제정치의 추이를 규정하였다.

1920년대 중순경 이래의 세계정치의 상대적 안정은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대몰락에서 시작된 세계공황의 만성화에 따라 상실되고,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한 일본제국주의의 반격은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의 반응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복잡화하면서 통일된 대응을 어렵게 하였다. 극동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미국의 공동간섭권유에 대해 영국 제국주의는 아시아 민족해방운동 견제라는 관점에서 불협화음을 보였다. 또 소련의 공동대처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불일치는 일본제국주의 행동의 자유를 허락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Sternberg 1968, 401).

그러한 가운데 먼저 극동에 만주사변을 수습하지 못한 국제연맹은 유럽국제정치의 중심문제가 된 이태리의 침략행동 역지에도 완전히 실패하고 국제평화기구로서 무력감을 폭로하였다.

독일은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 유럽문명을 옹호하는 '방어요새'로서 강조하며, 공산주의에의 증오와 공포에 사로잡힌 각국의 부르주아계급에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이 결과 히틀러는 반공주의 선전에 의해 이데올로기적 계급적 대립을 격화시켜 그의 침략계획에 대한 면죄부 획득에 성공한 것이다. 영·불 양국의 부르주아적 계급은 중대한 국제적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소련에 대한 적의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 대전 후 유럽의 자본주의 체제의 약화는 파시즘 발전의 기본적 요인이 된 가운데, 또한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 제국주의는 극동 국제정치를 격동에 빠뜨려 유럽의 파시스트 각국과 연관됨으로서 세계정치의 불안정을 높이게 되었다.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은 '건고하고, 공정하고, 또한 영속적인 평화'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왜 겨우 20년 만에 세계평화에 실패했을까? 우선 베르사이유 체제는 終戰 당시의 국제적 힘의 밸런스, 독일과 세계적 동맹사이의 힘의 관계를 반영한 제국주의적 평화이고, 구 독오축 각국은 따라서 처음부터 승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 파시스트 각국의 침략행동을 유도하는 외적 요인으로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관계를 들 수 있다. 또 이 체제는 연합 각국의 대립하는 제국주의적 요구를 일시적으로 미봉한 것으로 그 자체내부에 모순을 잉태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전쟁은 가장 중요한 전쟁이 유럽에서의 전쟁이고 유럽에서의 전국이 전쟁의 귀추를 결정할 점에서 그 성격은 1차 대전 때와 같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이전 미국은 실체적으로 영국 측에 결정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극동에서 일본과 영미 양국의 제국주의적 대립에 의해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기에 이른 점에 있어서는 1차 대전과 내용을 달리하며 이것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심점의 다원화의 진전에 의한 것이다. 2차 대전과 전후 세력균형에 미국의 관여정도, 역할은 1차 대전에 비해 훨씬 컸다.

한편, 전쟁 중 미묘해진 미·영·소 3국의 관계는 미국이 전쟁 중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보인 후 대소외교 정책이 고압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⁷⁾ 그런데 전후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기초가 약화되고 대중의 궁핍을 배경으로 각국의 공산당 세력이 증대하였다. 또 유럽 밖에서는 그동안 제국주의의 식민, 반식민 상태 하에 있던 지역에 열렬한 민족해방운동을 발전시켰다. 이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미묘하게 교차, 결합하여 공산주의 세력이 증대하게 되었다(岡義武 2002, 222-246).

전후 세계 정치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이렇게 확대하자 이미 전쟁 하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던 미·영 양국과 소련, 특히 미·소 관계는 급속히 긴장을 증

7) 소련 당국자는 이보다 먼저 독일의 패전이 시간문제라고 보게된 후 부터 이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5월 홉킨스(H. Hopkins)가 트루먼(H. Truman)대통령의 특사로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스탈린과 회견했을 때 스탈린은 그에게 '소련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두드러지게 냉정해지고 이제는 러시아에 볼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Sherwood 1948, 893).

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종전 후 냉전이 시작되었다. 이 국제적 대립은 전후 세계정치에 이상사태를 파생시키게 되었다. 유럽에서 독일의 분단과 극동에서의 한국의 분단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유럽 밖의 세계에서 민족해방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교차, 결합은 미소의 국제적 대립에 파동을 끼쳐 격화시키게 되었다. 일본의 항복선언 후 중국에서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과의 상극은 급격히 발전해서 각각 미소의 원조를 제공받는 가운데 전국적 내란이 전개되었다. 1949년 10월 공산당은 전국적 지배를 수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한 후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태는 극동 국제정치에 거대한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연히 미·소 관계에 반영되어 미국으로 하여금 극동에서 공산주의 동향을 점점 경계하게 되었다. 바로 그러한 때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에 대해 미국은 UN을 움직여 미국군을 중심으로 편성된 연합군을 파견시켜 남한측을 원조하였다. 중공 정부는 막대한 병력을 보내 북조선을 도왔으나 1953년 휴전이 성립되고 일단 수습되었다. 이후 인도차이나에 있어서 민족해방운동의 진전도 미·소를 또 새로이 극렬하게 긴장시키게 되었다. 1946년 이래 공산주의자 호치민의 베트남과 프랑스와의 교전은 1950년부터 중공의 군사원조 아래 프랑스군을 거듭거듭 후퇴하게 하였다. 미국의 원조도 전황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켰으나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 휴전 성립하고 사태를 잠정적으로 수습시켰다.

이와 같이 2차 대전 후 영국을 대신해 세계국가 지위를 차지한 미국에서 국제문제에 대한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전통이었던 고립주의가 1차 대전 이후 윌슨에 의해 탈피사도 된 후 여론의 지지를 받은 것은 2차 대전 이후였다.⁸⁾ 윌슨의 유토피아니즘이 1930년대의 현실정치 즉, 히틀러의 출현과 무력위협에 의한 국제질서 변동 등 이상주의와 거리가 먼 현실에 봉착해 현실주의 사조가 대두한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서 이상보다는 권력과 이익을 더 강조하여 경험적

8) 모든 국가는 무력을 사용한다. 그러나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과 정도는 각기 다르다. 의부세계에 대해 고립주의적 일수도 있고 혹은 팽창주의적 일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변화한다. 국가들이 지닌 권력은 특수한 내부적 역할을 갖는다. 이러한 권력을 토대로 하여 그 구성원들은 특수한 '위신(Prestige)'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국가의 대외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전쟁의 원인이 되어 왔음을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Weber 1994, 107-9).

역사적 교훈을 존중하면서 국제관계를 포함한 인간사회에서 권력이 기초가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모겐소(H. J. Morgenthau)는 인간의 권력욕에 비추어 정치는 권력투쟁이고 국제 정치는 국가간 권력투쟁이며 이 권력은 각국이 추구하는 이익개념의 다른 표현으로 보았다(Morgenthau 1987, 3). 이 권력과 윤리 관계에서, 현실 국제정치에 공통적 도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제정치에서 도덕적 행위의 가능성은 목표를 위한 현실적 수단 중 가장 덜 사악한 방법을 택하는 정치 지도자의 자질에 달렸다는 현실주의로 주장되었다. 파워의 불가피성을 아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 의지에 의해 파워로부터 해방을 발견하는데 인간의 자유가 있다고 인간의 주체성을 믿는 규범적 바탕이 깔려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전쟁이 가져온 현실적 감각과 냉전의 무자비성 등에 의해 국제정치를 보는 시각이 더 현실적으로 된 것이다. 50년대 중반까지 '도전자로서의' 모겐소의 현실주의는 미국이 환상과 광기에 가까운 사명감에 현혹되어 단순하고 과도한 대외개입을 남발하지 말고 적절하게 억제된 목적과 수단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954년 거의 전면적인 승리선언을 할 수 있었다(渡邊昭夫 외 편 1992, 27).

1945년 국제연합 헌장은 그 전문에서 '전쟁 후 참화에서 미래의 세대를 구조하고' '힘을 합쳐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이 본래 미, 영, 소 3국 간의 제휴협력을 전제로 조직된 것을 생각하면 국제 평화 기구로서 세계정치의 협약화해가는 것을 저지할 힘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정치는 새로운 파국을 향해 진행되었는가. 이점과 관련해서 우선 원자수소폭탄은 이미 1953년 소련의 보유로 미국의 독점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전후 경제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유럽 각국의 외교적 자주성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1954년 제네바회의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인도차이나 휴전을 실현시킨 사실에서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다른 편 전후 국제정치에 있어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평화공존 문제를 역사의 일정에 오르게 했다. 그 보장을 군사력의 균형에서 구하는 경우 — 그것은 공포의 균형으로서 — 큰 기대는 곤란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세력균형, 특히 발란서가 없는 세력균형이 평화의 보증으로 어느 정도나 효과적인가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 소련 양 블록이 각국 내에 대중의 행복, 해방을 추진하고 자체 변화해 나가며 양 체제의 상위는 축소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진행만이 양체제의 평화에 안정을 주고 블록 자체의 해소도 가능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양체제 자체가 — 특히 사회주의가 —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가능해졌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의 파괴력 증대, 특히 핵공포가 인류를 무겁게 하는 오늘, 국제평화와 인류문명의 몰락이라는 역사의 십자로에서 답을 찾는 일은 국제정치 영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요청되는 정치적 실천의 문제가 되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실천은 어떠한 방향에서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대답으로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혹은 여론 등 세계의 시민사회를 떠올리게 된다.⁹⁾ 새로운 인류공통의 과제로 주목되는 인권과 환경문제 앞에서 이들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이들의 역할이 부상하면서 국제정치에서의 이념과 힘의 균형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III. 국제정치사에 있어서 이념과 세력균형의 상호 역동성

이 논문은 유럽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성립으로 근대적 국제정치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냉전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럼으로써 국제정치사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그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제정치 역사는 다양한 측면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할 때,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념과 세력균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념과 세력균형의 상호역동성은 NGO시대라 불리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계속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 NGO가 모여 사는 세계를 우리는 시민사회라 부른다. 따라서 NGO와 시민사회는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가 가족, 결사체 영역(자발적 단체들), 사회운동, 각종 공적 의사소통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NGO가 시민사회 개념 내에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Cohen 외 1992, ix).

국제여론은 국제정치에 등장한 새로운 힘으로서, 극히 막강한 위력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점은 미국의 이라크전쟁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는, 즉 국가의 핵심적 이익 — 안보 등 — 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표출'될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여론의 무력화는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단결에 의한 대중조직인 제2인터내셔널이 반전, 평화원칙에 일치하면서도 전쟁이 임박해 국제정세가 민족주의적 대립을 나타낸 후 제국주의적 충돌의 1차 세계전쟁 폭발저지에 실패한 역사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이러한 여론의 무력화는 1차 대전 이후 2차 대전을 거치며 그 영향력이 커졌으며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국가이익이 걸리면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영향력만큼 국가는 여론을 더 관리하고 세심하게 조직할 것이다. 이때 이념 — 민족주의적인 — 의 힘이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무력화는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1차 대전 후 전쟁의 참화를 경험하고 '국제평화기구'로서 설립된 국제연맹은 세계평화를 위해 — 2차 대전 방지를 위해 —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2차 대전 후 설립된 UN도 이라크 전쟁방지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현재의 UN의 역할과 관련된 현상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국제연맹도, UN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은 강대국간의 협조를 토대로 해결되거나 초강대국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전쟁과 평화 같은 핵심적인 국가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그러하다.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이동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권력과 그 중요성은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정치에서 역동성을 발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현대에 있어서도 세력균형과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만이 현실적 힘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가 이 힘을 발휘하는데 이념이 여전히 역동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정치에서 이념과 세력균형의 역동성은 역사적인 전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작. 1983. "Nationalism의 원리와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상의 위상." 『국제정치논총』 제23집.
- 김성호. 2002. "막스 베버에 있어서 정치, 학문, 윤리의 문제." 『한국정치사상학회 발표논문』.
- 박상섭. 1992. "현실주의: 막스 베버에서 신현실주의까지."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 박의경. 2002. "민족문화와 정치적 정통성: 루소(J. J. Rousseau)와 헤르더(J. G. Herder)."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 조효제. 2000. 『NGO의 시대: 지구 시민사회를 향하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함께하는 시민행동. 1999.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서울: 홍익미디어.
- 岡義武. 2002. 『國際政治史』. 東京: 岩波書店.
- 渡邊昭夫 외 편·권호연 역. 1992. 『국제정치이론』. 서울: 한울.
- 大塚久雄 저·조용범 편역. 1982. 『사회과학의 방법과 인간론: 마르크스와 베버를 중심으로』. 서울: 풀빛.
- 衛藤藩吉·渡邊昭部·公文俊平·平野健一郎. 1997. 『國際關係論』 제2판.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Amnesty International. 2000.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London: A.I.
- Beetham, David. 1974. *Max weber and the Theory of Modern Politics*. London: Allen and Unwin.
- Carr, E. H. 1956. *The Twenty Years' Crisi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 Clark, John. 1991. *Democratizing Development: The Role of Voluntary Organization*.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 Cohen, Jean L.,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 Koebner, Richard, and Helmut D. Schmidt. 1964. *The Story and Significance of a Political World 1840~1960*.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rey, William. 1998. *NGO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 Curious Grapevine.'* New York: St. Martin's Press.
- Mannheim, Karl 저·임석진 역. 2000.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서울: 청아출판사.

- Matthews, Jessica T. 1997. "Power Shift." *Foreign Affairs*, Vol. 76.
- Mommsen, Wolfgang J., and M. S. Steinber tr. 1981. *Max Weber and the German Politics, 1890~192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rgenthau, H. J. 1987.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Knopf.
- Padover, S. K., and H. D. Lasswell. 1951. *Psychological Warfare*. New York: Headline Series.
- Pollack, Aaron. 1999. "A New 'Internationalism' in the making: Encounters, networks, alliances." *Transnational Associations* 4.
- Searly, Bill. 1996. "The Early History: From the Congress of Vienna to the Sanfransisco Conference." Peter Willets ed. *The Conscience of the World: The Influ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 the UN System*.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Sherwood, R. E. 1948. *Roosevelt and Hopkins*. New York: HarperandBrothers Pub.
- Sternberg, F. 1968. *Capitalism and Socialism on Trial*. Greenwood Press.
- Tuijl, Peter Van. 1999. "NGOs and Human Rights: Sources of Justice and Democrac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2.
- Weber, Max 저 · 임영일, 차명수, 이상을 편역. 1994. 『막스 베버 선집』. 서울: 까치.

ABSTRACT ■

The Dynamics of Ideology and Balance of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Heeseung Kim |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the current period after the Cold War. Thereby, the major influential factor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ir outcomes will be examined. To meet this objective, the ideology, mainly democracy, and the balance of power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of Europe, will be examined to determine their effects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international politics.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eriod after the Cold War will be scrutinized in detail.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global civil society to the power shift of the NGO era will be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the reality of power and its implications in international politics.